

대구민주운동
2·28의

2006/12
제6권 4호 통권24호

햇볕

www.228.or.kr

- 시론 ■ '진짜' 혁신의 주체가 되자
특집 ■ 2·28 대구학생의거사건수시증언
■ 사랑과 나눔으로 대구를 아름답게
- 2007 대구시 자원봉사 시책방향
- 지역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향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Daegu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謹賀新年

지난 한 해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의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삼단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공동의장 김범일·김정길 拜上



대구민주운동
2·28의

햇불

2006년 12월 제6권 4호 통권 24호 기간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 시론 04 / 이노수 TBC 대구방송 사장

2·28 특집 06 2·28 대구학생의거 사건수시증언 / 박찬 변호사

10 사랑과 나눔으로 대구를 아름답게

- 2007 대구시 자원봉사 시책방향 / 대구광역시 시민봉사과
- 지역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향 / 배기호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별기고

18 4·19, 혁명인가? 학생운동인가? / 이대우 부산대학교 교수

28 2·28 시민공동체 생형(가칭)설립제안 / 류진춘 경북대학교 교수

32 철강산업의 현황과 전망 / 정인상 산학연구원장

문예광장

36 청화산 오르는 날 / 박예근

37 침대칸 밥기차 / 장영향 수필가

40 속이생각III / 김상숙 2·28 부의장

42 디지털 문화와 우리들의 생활 / 이고운 강동중 3년

2·28일지

43 강문배 이사 개인전

44 구분숙 교수 현대무용 공연

45 하혜주 미술전 / 2006 경산예술제

46 대구사랑운동 10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

47 박수관명창 공연 및 수상 / 2·28 산악회

48 제6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 2·28 테니스회 출범

49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설립5주년 기념식 /

2006 대구자원 봉사자 대회

제6권 4호 통권 24호 기간
발행인 / 김정길
편집인 / 김약수
인쇄 / 2006년 12월 30일
발행 / 2006년 12월 30일
편집주간 / 김상규
편집위원 / 박재건, 김광주, 김동환, 김오용, 박명철,
김종인, 이방현, 김명환, 장영향
발행처 /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기획제작 / 애드웰(053)766-7838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 (대구은행 신암등지점 2층)
TEL : (053)943-0228
FAX : (053)959-2860, 943-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입회안내

※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의 계승발전과 우리 나라 21세기 민주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2·28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회원명단은 영구히 전산 입력 보전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의 납부하시는 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귀사의 기부금으로 손금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1-54호)

시론

‘진짜’ 혁신의 주체가 되자



이 노 수
(TBC대표이사)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근저 『富의 미래』에서 전혀 없는 새로운 부 창출시스템이 혁명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혁명적 부의 창출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이는 문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富는 단순히 돈이나 자산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무형의 소유를 지칭한다.

방송도 예외일 수 없다. 2007년의 메가트렌드 중에 하나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다. 방송과 전화와 인터넷이 따로 놀던 시대에서 이것들이 하나로 융합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별이 없어지고,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콘텐츠간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 접근이 자유로운, 이른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를 돌파하는 유일한 출구는 혁신뿐인 것처럼 보인다. 주지하듯이 장수(長壽)의 새인 술개는 40살이 되면 더 이상 쓸모없는 낡은 부

리와 발톱과 깃털을 스스로 던져 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 30년을 더 산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혁신은 특정한 정치적 구호나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철저히 기득권을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낡은 가죽을 벗기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죽 혁(革) 새로운 신(新)의 참 의미이다.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자주 꺼내는 첫마디는 “스폰지 같은 인간이 되자”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문화평론가의 말처럼, 사람은 공감하는 것만큼 성장하고, 공감하지 못한 만큼 제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다. 타인의 주장에 대해 절실하게 공감할 수 있다면 혁신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혁신의 단초를 찾아내는 능력은 공감이라는 대지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 공감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이다.

혁신의 구체적 첫걸음은 ‘역발상’이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생각의 시도, 고정관념을 부수는 도리깨가 바로 역발상이다. 코페르니쿠

스적 전환이나 콜럼버스의 달걀이 역발상의 예이다. 당연한 것, 당연하지 않은 것의 자리를 서로 바꿔볼 수 있는 상상력이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 혁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열정도 혁신의 빠질 수 없는 구성요소이다. 성공한 CEO의 덕목 중 맨 앞줄에 있는 것이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이다. 열정이 크면 클수록 목표를 향한 동력은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만사가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히말라야 14개 최고봉을 모두 등정한 한 산악인은 열정만으로 산을 오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 열정과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지만 두려움이 있어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감지하고 제거하여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혁신을 하려면 당연히 열정과 두려움을 함께 지녀야 할 것이다.

최근 대기업 인력채용에 관한 기준을 보면 유머감이 선발기준의 필수항목이 되었다. 자기긍정과 유머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증이다. 유머는 자신에게는 긍정적 사고의 드러냄이며, 타인에게 보내는 선의의 메시지이다. 심지어 남을 비판할 때조차 유머는 비판의 샷된 감정을 걸러내 준다. ‘진짜’ 혁신을 위해서도 유머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절제된 유머는 어깃장 주장들을 추스르는 좋은 유효하다.

사석에서 직원들에게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사과과표를 외우고 무조건 따라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승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인

사고과표에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 안에는 직장에서 성공과 보람을 찾기 위한 지침들이 빼곡히 있으니 10년만 외우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실천만이 ‘진짜’ 혁신과 ‘가짜’ 혁신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2007년 정해년을 맞아 TBC는 연중캠페인 주제로 ‘위풍당당 대구 경북’을 선정했다. 한 마디로 잃어버린 자긍심을 되찾자는 것이다. 나의 자긍심이 내 가족의 자긍심이 되고, 대구 경북의 자긍심이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될 때 미래는 나의 것이고, 대구 경북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 될 수 있다.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 100가지를 알고 10가지를 실천하는 사람보다 50가지를 알고 20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이다. 2007년은 말보다 ‘진짜’ 혁신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2·28대구학생의거” 사건수사증언

—당시 담당검사였던 박 찬 변호사에게 들어본다—

도로에 떨어진 노란 은행잎이 늦가을의 정취를 더 해 주는 2006년 11월 30일 오후, 매일신문사 명예 주필실에서 당시 2·28민주의거와 관련한 사건담당 검사였던 법조계 원로 박찬 변호사의 이 문제 처리 과정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증언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광복회회원 신성구 대가야회장, 언론인 홍종흠 2·28고문, 매일신문 명예주필 김정길 2·28공동의장, 박명철 2·28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47년 전 1960년 2월28일 대구학생민주의거 이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사직당국의 이 사건수사 과정의 일부를 그 당시 대구지검 담당검사였던 박 찬 변호사와 시위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대담을 통하여 요점을 정리 해 보았다. (편집자 주)

김정길 공동의장: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찬 변호사: 오랜만입니다. 2·28기념사업회를 맡아 수고 하신다기에 평소에 몇 가지 간직했던 2·28사건의 추억담을 말씀드리고자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2·28사건 내용을 잘못하다가는 세월이 흘러 영영 잊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김정길 공동의장: 47년전 “2·28대구학생의거”에 대한 변호사님의 말씀은 2·28민주운동사의 전모를 밝히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변호사님의 증언을 “2·28햇불”지의 특집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1960년 2월 28일 “2·28대구학생의거” 그 당시 변호사님은 어디서 근무 하셨나요? 그리고 2·28직후의 연행학생 수사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박 찬 변호사: 저는 그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28관련 시위학생과, 관련교사 수사는 대구남부경찰서 사찰계 에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2·28학생시위가 일어난 직후, 3월 3일로 기억합니다만 아침 일찍 이양기(李洋基)란 분이 집에 찾아와 나를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검사직에 있을 때 일체 외부사람과 만나지 않았고 특히 동료검사들이나 관계분들의 청탁을 적극 사양해왔던 강직검사로 알려져

무서운검사(?)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니 이양기란 사람은 나이는 같지만 나의 고려대학교 후배이고, 인교동 처가에서 공부할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찾아온 연유를 물었습니다.



당시 이양기씨는 경북고등학교 독일어 강사로 있는데 3일 전, 2·28학생데모 때문에 남대구경찰서 사찰계 형사가 찾아와 “당신 학생데모 하도록 선동했다는 주모자지? 당신 공산당 지령받은게 맞지? 빨갱이아냐?” 라고 물어뜯으며 다그쳤다고 했습니다. 이양기씨는 극구 부인했으나 사찰계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가 다시 데모 주동자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오늘 사찰계로 9시까지 나오라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면 꼼짝없이 물고문 당하거나 영창에 갈 것이 뻔하다며 이를 모면케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양기씨는 평소 자유당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데모를 주동 안 했으면 왜 당신을 지목했느냐고 물었더니 이 데모는 자유당정부의 부정부패와 앞으로 3·15 정·부통령 선거공작으로 대구지역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을 선거 유세장에 못나가도록 하기위해 일요일 강제 등교를 시킨 것이 원인이라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찾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김영기 교장(경북고)이 박찬 검사를 찾아 가보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기교장도 내가 잘 아는 교장이었습니다. 김 교장이 경대사대부고 교장 재직시 자녀사업문제로 사건화 되어(중간생략)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기소유예처분으로 나를 고맙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모로 고심 끝에 일단 피신 할것을 요구했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고향출신이며 형제같이 지내는 남부경찰서 우상봉 서장에게 찾아 갔습니다. 우서장에게 이양기를 왜 조사하려 하느냐? 왜 빨갱이로 만들라 카노? 이양기선생은 내가 알기로 민족사상이 뚜렷하고 항일투쟁정신과 정의감이 넘치는 농민운동가이며 교육계에서 훌륭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 내가 피신하도록 권유했으니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우상봉 서장은 사찰계에서 하는 일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내게 “큰일 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이양기를 도망치도록 하셨습니까?”하며 걱정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양기씨가 피신한 후 전전공공하던 중 자유당 경북도당 이우익 위원장을 찾아 갔습니다. 역시 이양기씨를 왜? 빨갱이로 모느냐? 했더니 잘못 하다가 나라가 디비진다며 도당의 남정보 선전부장이 그렇게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남부장을 만났더니 그는 공산당의 사주라고 했습니다.



홍중흠 고문 : 변호사님은 공안검사였습니까?

박찬 변호사 : 아닙니다. 일반검사였습니다.

신성구 회장 : 그 당시의 경찰서의 사찰계의 힘은 자유당정권에서는 권력이 아주 썩었습니다. 누구든 이상한 행동이나 쓸데없는 말을 할 때는 사찰계에서 전부 좌익으로 몰아부쳐 처벌했으니까……

박찬 변호사 : 맞습니다. 자유당 당조직과 경찰서 사찰계의 힘은 요즘의 경찰서 형사계와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요……

홍중흠 고문 : 그후 2·28관련 사건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박찬 변호사 : 이양기씨가 피신하고 없으니 결국 조사가 혼미하던 끝에 3·15부정선거 사건과 4·19가 터지는 바람에 모두가 끝나 버리게 된 것이죠……

홍중흠 고문 : 우린 그당시 학생데모 직후 보름동안의 사건 수사과정과 행적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2·28의 발단은 경상북도 교육청 학무과장의 강제 일요등교 지시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수사내용은 어찌됐는지요?

박찬 변호사 : 그건 모릅니다. 결국 지도교사들의 수사종결은 이양기씨가 없는 관계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됐습니다.

홍중흠 고문 : 우리가 알기로 이양기 선생님은 농민운동가였다가 독일어 강사로 오신 분으로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호영 선생님이 강의시간에 자유당정부 규탄과 강성 발언을 해서 이호영 선생님이 조사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양기 선생님이 조사대상이 된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이양기 선생님은 정의감에 넘치는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요.

박찬 변호사 : 이양기씨가 학생들한테 영향력은 없었다하더라도 시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였기에 주목을 받아왔고 역시 이호영 선생이나 다른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양기씨의 피신 때문에 조사를 안 받았던 것입니다.

홍중흙 고문 : 2·28데모직후, 당일 오후 뉴스를 보면 공산당 세력의 지령에 의한 소행으로 발표 됐거든요. 학생들도 당에서 좌경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알았죠. 모든 것은 오정근 도지사의 지시가 아닌가요?

신성구 회장 : 그보다 당 조직의 남정보 선전부장의 짜여진 각본이었을겁니다.

홍중흙 고문 : 우리는 당 선전부장 남정보 개인이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정길 공동의장 : 당조직의 씨나리오에 의한 사전계획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당과 사찰계의 짜여진 각본의 틀에 걸려든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찬 변호사 : 선거계략은 그럴수 있으나, 내가 알기로는 경찰서 사찰계의 단독 계획 수사였다고 봅니다. 담당검사였던 내가 고향 형제간 같이 잘 알고 있었던 이상봉 서장이 그렇게 말했고, 나의 청을 잘 받아 드린 것 같습니다.

홍중흙 고문 : (용공혐의사건이라면) 검찰이 이 사건을 송치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을 보면 좌익내용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몇몇 친구들이 연행되어 강금 되고 협박도 받았지만요....

여하튼 오늘 처음 2·28사건 수사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누군가가 사건을 수사처리 했든지 아니면 막았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알려져 궁금했는데 결국 종결 된 것이 변호사님께서 이양기 선생님을 도망시킨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홍중흙 고문 : 만약 3·15와 4·19가 아니었다면 변호사님도 검사라 할지라도 위험했겠네요?....

박찬 변호사 : 그럴지도 모르죠... 그때 자유당 조직의 세력과 경찰서 사찰계의 힘은 타 어느 기관보다 막강 했으니까... 4·19때문이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전개됐을지 아무도 모르죠...

홍중흙 고문 : 3·15부정선거와 김주열 사건 때문에 자유당 정권은 전전공공 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보름 동안의 시간은 있었기 때문에 2·28데모 수사는 할 수 있었는데요....

박찬 변호사 : 그러나 부산에서 한옥신 부장검사가 김주열 사건을 좌경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았고, 대구에서는 2·28을 좌경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을 내가 막은 것이 결국 이 문제의 수사를 막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2·28사건 수사의 전부입니다.

특 집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07 대구시 자원봉사 시책방향

대구광역시청 시민봉사과

첨단 디지털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세상을 이끄는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나눔의 온정이야말로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빛날 송고한 가치일 것이다.

이제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요즘, 새로운 시민참여운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아픔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 하며, 희망을 키우는 사랑의 빛이 되어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며 행복과 풍요로움을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2005년도 갤럽조사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는 3조 1천억(2004년 GDP의 0.41%)으로 추정되며, 미래의 자원봉사활동은 여가활동의 하나인 볼런테인먼트(volunteer 자원봉사 + entertainment 즐거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정부의 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의 지역사회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과제의 중요해결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타인의 강제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회에 대한 책임과 연대감

(Solidarity)을 느끼게 하는 중요수단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서구 선진국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는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복지는 국가적 책임과 국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사회보장이 제도화된 오늘날도 자원봉사는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자혜심이나 감상주의적 동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만남과 나눔의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행동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자원봉사는 인간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하여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나 함께 나누며,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면서 보다 인간다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랑의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이웃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위

대한 힘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므로 대구시는 200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자원봉사과'를 신설하였고, 200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으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자원봉사 연구·조사 및 포럼 등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거 참여부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시책을 개발하고 봉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주 5일제 확산에 따른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의 여가시간을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토록 하고자 분야별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58개 가족봉사단의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단위의 여가시간을 봉사활동으로 활용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봉사체험을 통하여 연대감을 증진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한다.

전문자원봉사단의 봉사분야는 전기통신, 보건의료, 문화예술, 수지침, 교통, 이·미용, 외국어통역, 발맞사지, 건축분야 등의 봉사단을 모집하여 발대식을 거쳐 수요처를 발굴·연계하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어르신봉사단 및 자원봉사 강사뱅크 운영

고령화 사회, 늘어나는 어르신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요구에 부응하여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고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에 기여코자 읍·면·동 지역봉사단별로 어르신봉사단을 구성하여 마을골목, 소공원, 놀이터 및 소하천 청결운동, 학교앞, 주요네거리 등 교통질서 계도 및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며,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 예절교실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은퇴교수, 교장, 의사 등 강의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소정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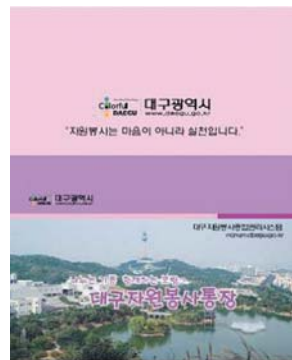


학교,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뱅크제를 운영하여 어르신 전문인력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자원봉사자가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봉사활동시간을 전산화하여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적립된 활동실적을 통장으로 발급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포상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이후 발급된 마일리지 통장은 벌써 15,000명을 넘었고 통장발급자의 1인 평균봉사시간은 22시간으로 자원봉사 모범도시로서의 명성에



결맞는 활발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관내 병(의)원, 음식점, 자동차정비업소, 영화관,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우대기관을 모집 발굴하여 자원봉사자가 할인가맹점 이용시 5~20% 정도의 이용료를 할인코자 한다.

또한, 시에서는 자원봉사 연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대상, 정부표창 등 수상자에게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관리자의 연찬회,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마일리지 적립시간 우수자 등 우수봉사자에게 문화탐방, 선진지견학, 시티투어등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원봉사활동 체험사례 공모

아름다운 세상만들기를 위해 사랑 나눔 실천으로 얻은 소중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자 자원봉사활동수기를 공모하여 사례집으로 발간,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에 보급한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재해재난이나 위험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대규모 긴급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단체)에 대해서 기본활동도구, 안정장비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원봉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원봉사 한미음 페스티벌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과급시키기위해 자원봉사 대축제주간에 자랑스러운 숨은 봉사자를 발굴 포상하는 자원봉사 대상 시상, 자

원봉사 홍보부스 운영, 홍보캠페인 전개, 자원봉사 사진전, 문화공연 등 다양한 축제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내실있는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자원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 및 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코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를 활용하여 전문 관리자양성 및 자원봉사 수요·공급 욕구에 대한 맞춤형 자원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밖에 법령에 의한 획일적인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240세대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하여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고취시키고 자활의지를 제고하며 여성자원봉사 역량배양 및 참여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고 12월 자원봉사자 주간에는 '자원

봉사자대회' 등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단체의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 축제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위로, 격려코자 한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전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의해 시 산하 공무원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대구광역시 공무원봉사단'을 창단하여 '공무원 1%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산하 43개 공무원봉사단은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찾아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완성하고 있다.

공무원봉사단의 봉사활동은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의 샘을 흐르게 하여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언행일치의 지도력을 보임으로 시민으로부터 공직자의 존경과 행정신뢰를 안겨주고 있다.

이처럼 향후 미래사회는 기존의 이념적, 국가적 체제가 무너지고 지구 공동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전반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변화된 사회가 단순히 시간과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열린 사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 사회적 투자가 있어야 가능해 지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가할 수 있기에 시에서는 이같은 자원봉사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전 시민의 자원봉사자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역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향



배 기 호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세계는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자원봉사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체계화를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 특히, 대구는 하계U대회,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자원봉사'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친숙한 말이 되었다.

오늘날 자원봉사는 더 이상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 자원봉사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여 국가와 공공재를 공동생산하는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있고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하는데 그 핵심주체가 바로 지역자원봉사자이고, 주민참가이며, 제3섹터인 것이다. 지역자원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가까운 지역사회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를 돕고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의미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지역사회내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도움을 받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의 가치능력을 증진시키며,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자신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현황을 간단히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원봉사센터 등록 현황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남자 23.2% 여자 46.8%로 나타나 2004년에 비해 20.9%가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3.8%, 직업별로는 주부가 23.1%, 자원봉사 활동분야는 사회복지가 36%, 환경보호 21%, 교통질서 9% 순이다.

사회복지활동 인정센터의 등록현황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는 2%, 자원봉사자의 1인당 평균 자원봉사시간은 23시간, 횟수는 6.62회에 불과하다.

대구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직업별 자원봉사자는 학생, 주부 순으로 나타나서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등록현황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전 계층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이 선진국 시민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등에서는 이미 시민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정착되어 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자원봉사참여율은 영국의 51%(2003년), 호주의 46%(2004년), 미국의 44%(2001년, 2004년 정부 통계는 28%), 홍콩의 22%(2001)에 비해 낮으며, 싱가포르의 15%(2004년)에 비해 다소 높다. 성별로는 미국과 유럽의 평균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이 높았지만 불가리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및 스웨덴 등 5개국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높다. 직업별로는 고학력, 고소득층

이 노동계층 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높고, 자원봉사활동영역에서는 제3섹터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불가리아 46%, 스웨덴 86%이다. 자원봉사활동분야로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사회서비스 및 종교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자원봉사활동은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이 국민 생활의 일부로 생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이 국민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구지역 역시 자원봉사활동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 자원봉사계의 부단한 노력과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지역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이다.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생활 과제화는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몫은 남겨두어야 하고 생활 과제를 틈새서비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 창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fun volunteer(즐겁게 자원봉사하기)이다. 특히 주 5일제 및 주 40시간이 정착되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여가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편과 웃음이 가미된 '즐거운 자원봉 (funvolunteer) 즉 볼런테인먼트 (Volunteering+Entertainment)'의 개념이 이제 대구지역의 자원봉사계에서는 블루오션(blue ocean)



의 한 전략으로서 자원봉사활동터전에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맞춤형 지역자원봉사정책 및 자원봉사특화 운동의 확산이다.

2005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자원봉사동산 만들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현재 23개통으로 구성된 도·농 복합지역인 광주 오치1동의 “삼각산 사랑을 통한 건강한 삶터 가꾸기 사업”과 같은 지역특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대구지역도 광주 오치1동의 ‘삼각산 사랑을 통한 건강한 삶터 가꾸기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로하스(LoHAS)의 개념이 반영된 ‘팔공산’이나 ‘앞산’을 volunteer tour 코스로, volunteer picnic 코스로, volunteer 체험학습장으로, 자원봉사활동터전으로 활용할 시기이며, 대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방건강도우미 자원봉사단, 섬유패션도우미자원봉사단 등의 육성도 요구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이념의 확산이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시행이후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은 자원봉사 활동이념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점이다. 참여동기에 있어서 이타적, 사회책임 의식의 동기보다 이기적, 경험추구적 동기 또는 욕구에 의해 주도되는 참여 형태 등이 증가할 수 있다.아

름다운 대구지역사회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무엇보다 공공활동에 참가하는 대구지역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의 개념과 목적을 분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공무원들의 의식도 중요하며,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기관, 센터 등 여러 주체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영역과 방법의 다양화이다.

이제는 자원봉사활동대상영역도 어떤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원봉사자의 활동영역이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장으로서, 해외자원봉사,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기관, 병원, 도서관, 관공서 등 이 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활동이 가능하며,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행할 수 있는 주요 대상자로서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환자, 이민자(다문화), 이재민 및 범죄예방 등 다양하다.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의료봉사, 법률구조자문, 문화, 예술, 스포츠, 치료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화훼치료, 성인교육, 가족상담 등 특별한 지식과 기술 및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추진방법도 일반적인 서비스제공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일정시간 한정 서비스제공에서 탄력적 시간 서비스 제공까지, 단순한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활동까지, 자원봉사자만의 활동에서 클라이언트도 포함한 활동까지, 단기간 혹은 주기적인 활동 형태에서 장기간 혹은 정주형 활동 형태까지, 만들어 준 활동에의 참가에서 만들어서 하는 활동까지, 자원봉사조직 단독 활동 방식에서 타 조직과의 연계 활동 방식까지 다양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대상의 확대이다.

자원봉사자는 주부, 학생 등 특정 계층 중심에서 기업, 가족, 전문직, 클라이언트 등 전체 주민으로 확산되어야 하지만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으로 추정되는 직업인들의 참여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사무·기술직의 참여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최근 기업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활동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특정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 한 방법이 자원봉사활동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보다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자별 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다. 즉, 학생 및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듯이, 여성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여성자원봉사센터,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자원봉사센터, 노인자원봉사센터, 전문직자원봉사센터, 종교단체 자원봉사센터, 기업자원봉사센터 등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센터 또는 팀의 설치·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독자적인 센터나 팀을 만들지 않고 종합자원봉사센터 내에 지원체

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여섯째, 자원봉사인정보상제의 확대시행이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기여한 바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물질적(현금, 현물), 비물질적(기회, 우선권부여), 정서심리적 인정 및 보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상찬예우함으로써 중도탈락을 줄이고, 자원봉사를 계속하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분양시 우선권을 주고, 직장에서는 근무환경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대구의 경우도 봉사마일리지 적립시간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분양 우선권, 공영무료주차, 공공시설무료임차, 문화예술공연장무료관람, 예술축제초대, 공원내 조형물 이름새겨 넣기, 무료웰빙건강강좌 초청, 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파격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일찍이 영국 베버리지는 좋은 사회는 국가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살기 좋은 대구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구지역주민의 몫이다.





4·19, 혁명인가? 학생운동인가?

이 대 우
(부산대 교수)



1.4 · 19혁명 격하논리의 오류

진보와 보수의 공허한 논쟁 속에서 구국적 대안 세력의 갈구는 선진하는 국민의식의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안세력으로 자부하는 일부 세력들이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역사를 재단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미래의 세대들에게 들려 줄 대안교과서 시안에서 ‘좌편향’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역편향의 편향을 거듭했다는 사실은 ‘좌편향’의 교과서와 함께 후계세대의 역사의식을 어둠으로 몰고가 역사적 자아를 과편화시키는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게 할 것이다.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문제는 후진국가가 풀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선결과제인 것이다.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각국의 특수성에 따라서 양자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발전전략의 문제는 구체적 민족현실에 따라서 저발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의 문제지 그것이 역사를 보는 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민족주의의 목표가 자주 · 독립 · 민주 · 통일 · 발전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我와非我’의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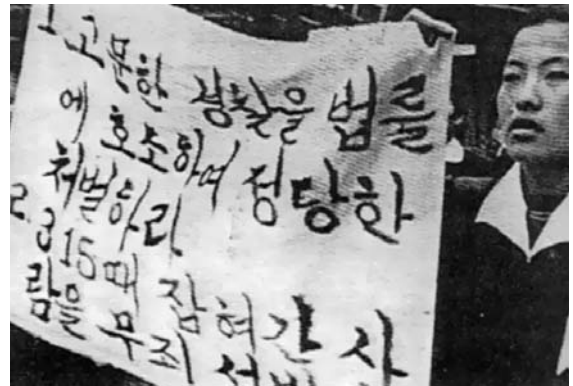
자유당 독재정권 하에서는 민주와 비민주와의 투쟁이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하나의 거치른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우리 역사 속에

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민중의 힘을 가로막는 반봉건적 전제주의 세력과의 혁명적 대결을 예고하는 해조음이었다.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감행된 3·15부정선거를 기화로 드디어 터진 4·19, 그것은 바로 한국 피플파워(people power)의 승리요 혁명이었다. 그것은 민중의 대역으로서의 학생들이 일구어 낸 시민혁명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을 단순한 학생운동으로 규정, 학생을 일컬어 “권력을 붕괴시킨 견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등장해 사회적 무질서가 초래됐다”고 한 주장은 피상적 견해로 5·16쿠데타세력과 역사관을 공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4·19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상황에서 학생들의 구호도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원칙확립으로부터 급속도로 사회주의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반체제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다”는 언명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릇 인식한데서 오는 또 하나의 매카시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보수세력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뚫고 나타난 청년세대의 민족주의적 열망의 표현인 것이다.

그 당시의 혼란과 무질서는 누가 정권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다. 12년 동안의 긴 겨울 공화국에서 벗어난 민중들의 참여와 요구의 확대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는 없다. 여기에다 장면의 유약한 리더십과 약체정부는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혁명 후에 뒤따르는 혼란과 반동은 이미 세계사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혼란은 극대화되면 진정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혼란 속에서 역사발전의 새



로운 싹이 터오는 것이다. 민주당 중반기를 넘어서면 국민 스스로가 혼란을 진정시켜야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혼란은 점차 하강곡선을긋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세력은 그 당시의 혼란을 망국적 혼란으로 규정, 선불리 권력찬탈에 나섰다. 것이다.

만약에 5·16쿠데타가 없었다면 그 혼란은 서서히 혁명 후의 평화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갔을 것이며 창조적 혼란으로 역사 속에 우뚝 섰을 것이다. 혼란이 머물고 간 자리에 이념의 경직성이 연화(軟化)되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며, 국민통합의 신선한 기풍이 진작되어 부강한 민족국가 건설의 씨앗이 뿌려졌을 것이다.

쿠데타 세력이 근대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5·16은 혁명이라는 견해는 그들이 근대화에 실패했다면 5·16은 쿠데타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역사에 대한 결과론적 평가는 언제든지 역전의 논리를 불러 올 수 있다. 역사 속에서 패배로 함몰된 사건이나 운동이 훗날 역사적 정당성의 승인을 받아 청사의 귀감이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또 그것이 역사의 추동력이 되어 역사는 한 단계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동학혁명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의



단순한 ‘운동’으로 평가절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민족사를 꿰뚫는 역사의식으로 엄정하게 내려져야 하고 역사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4·19가 미완의 혁명이라고 해서 ‘학생운동’으로 격하한 사실은 사실지(事實知)도 방향지(方向知)도 상실한 평가의 빈곤을 드러낸 것이다. 5·16쿠데타와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5·16은 어디까지나 ‘쿠데타’이고 4·19는 혁명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이는 이미 군사정권에 의해서도 헌법전문에 ‘4·19정신의 계승’을 명백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4·19의 발생원인과 그 본질 및 파장을 따져 4·19가 얼마나 위대한 혁명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무엇이 4.19를 일으켰는가

4·19혁명을 ‘아름다움 그 자체’로 보는 이유도 대구의 2·28에서, 마산의 3·15에서, 서울의 4·19에서 진보와 보수, 적과 동지, 너와 나, 그리고 지역을 뛰어 넘어 혼연히 하나되는 민족

의 생명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민족정신은 살아있었고 민족정기는 다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런 생명력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단 말인가.

3·1운동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이 땅 최초의 민중운동이었으며 학생이 직접 대중과 더불어 민족해방을 위해 싸운 운동이었다.

3·1운동이 터지자 농민, 학생, 근로자들, 일반 민중은 일본제국주의에 감연히 일어나 항쟁했으며 특히 농촌에서는 공공연히 폭력성을 띠고 나타나 관청, 헌병주재소의 습격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 투쟁에 동원된 인원수는 총 150만을 헤아리고 1919년 1년 중에 사상자가 1만명에 달했으며 피검자수는 19,499명에 달했다. 사회구성별로 보면 농민이 56%, 학생이 20%, 근로자가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직 교육열이 앞섰던 당시 학생이 전체 동원수의 20%를 차지했다는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학생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중의 항일운동도 일제의 지배체제가 굳어져 감에 따라 점차 지하비밀활동으로 변해가고 독립투사나 일부학생만이 목숨을 걸고 하는 운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이 대중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학생운동으로 끝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926년 6월 10일, 율희황제 인산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은 인산의 날에 모여드는 수많은 민중을 선동하고자 만세운동을 전부터 계획하며 결연히 실천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호응이 없

어 3·1운동처럼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다.

6·10만세운동은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학생들의 민족해방을 위한 줄기찬 저항의 전통은 지속되고 있었다.

1929년 11월 6일에는 우리 학생과 일본학생 사이에 사소한 싸움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인 항일투쟁으로 번졌다. “일본제국주의는 물러가라”는 학생들의 구호는 점차 가열되어 독립운동으로 승화되어 갔다. 12월에는 보통학교까지 일어나 만세운동에 가담했다.

이 운동에 참가한 학교수는 194교 학생수는 54,000명, 퇴학자 582명, 무기 정학자 2,330명으로 세계사상 드물게 보는 학생운동이었다.

이와 같이 3·1운동→6·10만세운동→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민족정신은 결코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러한 불멸의 민족혼은 민족의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 해방 후에도 우리 민족의 삶 속에 생동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은 민족정신과 민족정기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생명력을 떨쳐 일으켜 내는데 실패하고 급기야는 폭력적인 지배로 표변하고 말았다.

이승만은 제1공화정의 수립과정에서 과도하게 친일세력에 의존, 약간의 예외는 있었으나 독립운동세력을 배제하고 일제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1960년의 경우 경찰내부를 투시해 보면 일본경찰 출신이 총경의 70%, 경감의 40%, 경위의 15%를 차지했으며, 전국 경찰관 약 3만 3천명 가운데 사복경찰의 약



20%와 정복경찰의 10%가 일본경찰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자유당의 고위간부들과 내각의 핵심적 인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제의 관·검사와 경찰관 및 관료를 지낸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지지가 아니라 억압적인 힘에 의존해야 한다는 식민통치적 사고의 여장선상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권력투쟁 또는 권력장악의 주요한 무기로 악용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반공을 자신들의 지위를 수호·강화하는 정략적 도구로 사용했었다. 결과적으로 종전 후 미국의 대 한반도 현상유지정책은 이승만으로 친일세력과 손잡게 했고, 이는 또한 일제잔재의 청산을 가로막는 역사의 죄악을 범하게 만들었다. 민족정기는 위축될 때로 위축되고 이로부터 역사는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해 전시 중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통근 버스를 헌병대로 연행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 1952년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승만은 또다시 1954년 9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유례없는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1958년에는 2년 후 실시될 제4대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을 말살하려는 책략으로 무술정관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을 완료했던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자행된 것이 3·15부정선거였다.

이러한 정치상황 하에서 경제적 상황 역시 극히 파행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행해진 일본인 귀속재산 처리과정은 미군정에 의해 등용된 친일민족반역자들로 하여금 이권을 탈취케 하여 정상배들을 날뛰게 하고 이 나라 경제운리를 타락시켜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를 특징지었다.

1948년 토지개혁의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해 농민들은 토지는 분배받게 되었으나 그들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토지개혁의 역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다시 소작인화되는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리하여 농민들은 과중한 부채에 시달렸으며 이농현상을 보이게 되고, 이들은 다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농촌경제의 균형적

인 발전의 가능성은 파괴되었고, 그것은 곧 바로 사회적 불만과 불안으로 연장되어 갔다.

또한 미국의 원조경제는 결정적으로 해방 이후로부터 4·19에 이르기까지의 경제구조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경제구조를 대외의존적인 성향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원조는 단적으로 한국의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저해하여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형성시켰고, 한국의 정치적 자주성을 박탈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 하에서 우선 지주계층들은 일제 하 친일관료 집단들이었으며, 이들은 이승만과 야합하여 고급관직, 기타 고급직업, 귀속재산의 불하를 받아 특권을 유지했었다. 또한 귀속재산의 불하과정 속에서 특혜를 받아 형성된 신흥자본가들은 관권과 결부되어 원조경제의 이권을 독차지하고 독점가격을 형성하여 중소기업을 궤멸시키고 서민의 생활기반을 파괴했었다. 노동자계급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와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 민족정기의 쇠퇴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발돋움은 불가능했다.

농민계급 역시 빈곤과 무지에 사로잡혀 정치에 무관심한 보수주의의 온상으로 전락했으며, 농지개혁의 실패와 잉여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저곡가 정책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은 원조의 분배대상에서 소외되고 농가부채는 늘어나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을 초래했고, 이들 대부분이 도시 외곽의 빈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식인 계층은 격심한 자기분열을 겪고 있어서 불의를 직시하면서도 비굴한 침묵 속에 갇혀 있었고 일부는 권력과 야합,

출세주의로 치달았던 것이다.

이렇듯 부정의와 부패와 무기력으로 포위된 조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해 나갈 민족혼의 부활을 그 어떤 기성세대에게도 기대할 수 없었다. 독재정권은 전진하고 반독재적 상황은 양성되고 있었지만 그 혁명의 주체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시대가 바로 4·19 직전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족정신은 살아있었다. 드디어 1960년 2월 28일,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음모의 일환으로 야당 유세장의 출입을 금지할 목적으로 취해진 ‘일요등교 지시’에 반대하여 대구 고교생들에 의한 일장의 시위가 감행되었다. 이는 곧 3·15 마산사태로 과급되어 김주열군의 죽음을 가져 왔고 한 달 후 서울에서 4·19로 ‘피의 화요일’을 맞게 된다.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발포로 186명의 꽃다운 생명을 잃게 된다.

3.4 · 19혁명의 본질

4.19혁명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2월 28일 대구 시내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시위의 구호로부터 출발한 혁명데모는 향도 마산에서 김주열군의 주검을 보고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 ‘3·15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기붕 물러가라’고 절규했으며 수도 서울에 이르러 마산학생의 석방을 요구했고 ‘행정부는 이 이상 민족의 체면을 망치지 말고 무능·부패·야만·독재·몽둥이 살인정치를 집어치우라’고 하며 ‘민주역적 물러가라’고 했다. 4월 25일 대학교수들은 ‘4·19에

쓰러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고 촉구하며 ‘시국선언문’을 통하여 4·19가 의거임을 규정했다. 시국선언문은 2·28 이래의 모든 사태에 대한 결론이었다.

위의 과격한 혁명과정은 시사하듯이 4·19는 폭력을 통해 정권을 붕괴시킨 급격하고도 돌연한 변혁이었다.

그러나 일방 4·19는 개념규정에 있어 ‘의거’와 ‘혁명’의 양분론으로 갈라져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적어도 역사의 기술을 좌우하는 개념은 사회과학적인 분석·검토와 논거 위에 규정되어야 하지 기분적, 낭만적 의도에서 출발하든지 정치적인 의도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현대학자 간에 가장 잘 통용되고 있는 혁명의 개념은 소로킨(P. Sorokin)이 주장한 “돌연하고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 즉, 기존정부(사회적, 법적 질서는 물론)가 갑작스럽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다른 정부로 대치되는 것 또는 통상적으로 기존헌법상의 조처를 위배, 폭력을 사용하여 정부체제에 급격한 변혁을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추어 4·19는 광범위한 전국적인 대중봉기가 있었고, 서울을 비롯한 도처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대량 총격전이 자행되었고, 이로 인해 200명의 피살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를 낸 폭력상태에 이어 12년간 계속되어 온 이승만 정권이 돌연하고 급격하게 붕괴된 그것 자체만으로도 혁명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도세력이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순수지식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어떤 혁명이든지 그 혁명이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하나의 세력이 타 세력과 동맹 내지는 결합을 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 이론의 학습이 일천한 한국은 여타의 사회세력과 역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지식계층의 단일조직 형성으로 혁명을 수행했다는 것이 바로 한국민주주의가 정초해야 할 사회구조의 취약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세아적 정체성으로 집약되는 사회구조와 서구적 의미의 부르주아계급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놓을 때 혁명의 주도세력이 왜 지식계층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4·19의 본질에 접근하려면 서구식 이론의 프레임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visible)’ 만으로 혁명세력을 규정한다면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러기에 혁명세력의 분석은 ‘노출된 부분’과 ‘노출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 그것이 어떤 경로를 밟아 동맹·결합되는가를 규명해야 혁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이후에 오는 민주당시대의 정치적 불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프란츠 파농의 혁명론에 의하면 “혁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민과 룬펜 프롤레타리아(lumpen proletariat)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고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농민은 고도의 보수적 역할이 아니면 고도의 혁명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역설했는데 이는 민주당 말기에 유포된 ‘농민봉기설’이나 ‘4월 위기설’은 우리에게 의미있는 시사를 던져준다. 이러한 농민의 보수성과 혁명성의 양면성은 때로는 우익독재의 온상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좌익독재의 입각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국의 농촌은 조선조 봉건사회의 농민생활은 일부 지배층의 농복으로서의 그것이었고, 근대화 회로의 개화는 식민지 농민으로서 그 경제적 착취의 부담을 전담하다시피 하여 변함없는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해방 후는 조국경제의 안정,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의 억제라는 지상요청에 방과제로서의 희생을 강요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농촌은 정체와 빈곤과 봉건적 잔재를 떨쳐버리지 못했고 자연상태로부터의 해방은 커녕 정책적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영세화현상은 해방 후의 정치적 혼란, 농지개혁, 6·25동란, 경제적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정부의 유명무실한 중농정책 등으로 가속화되고 채산이 맞지 않는 농업과 황폐한 농촌을 등지고 “시골의 굶은 계급구조에서 보다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유동성 가운데서 비교적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로 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도시를 향한 고통스러운 이농현상은 농민운동의 역사적 맥락과도 맞닿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9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줄곧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항상 권력과 위정자에 대해 항거의 몸짓을 보여 왔다. 국가통치 질서에 대해 최초로 저항했던 신라 농민운동을 비롯 흥경래의 난, 진주민란, 동학혁명, 3·1운동 등의 주체세력은 모두 농민이었다.

이농민과 더불어 6·25동란으로 생긴 전재민 및 월남인구의 도시에의 무질서한 이주는 재래의 도시 원주민의 의식구조에 변질을 가져왔고 농민인 도시이주, 이농세대도 새로운 환경과 도시문화에 접하게 되어 그 적응을 시도하지만 비정상적인 도시화과정에서 유발된 생계의 불안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축적시킨다. 그러나 봉건적 가부장제적 윤리 하에서 성장한 이농, 1세대는 그들의 사회화 경험이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주의로 흐르지 않는 것 같다.

헌팅턴도 그의 저서에서 “시골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복종심이 많고 정치적으로 피동적인, 전통적인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농촌의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보수주의와 묵종의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농 1세대는 비록 행동으로 표출은 못하지만 ‘공격성향’을 띠게 되어 자연 가정의 제2세대들에게 자극을 하게 되고, 이들의 체내에 들어온 ‘공격성향’은 교육을 통한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작고 큰 불행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 혁명적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욕으로 충만하게 된다. 학교생활에선 주로

다이나믹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이상세계를 지향하려고 한다. 기폭제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혁명예비군’인 것이다.

그들은 부조세대(父祖世代)와는 달리 “지리적 유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직적 유동 즉, 지위향상을 바라게 된다. 만약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빈민굴에 있어서의 과격주의는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4·19 당시 각급 학교 데모 주역들의 출신지를 보면, 2·28대구학생의 주역 8명 모두가 거의 농촌 출신이었으며 4·18고려대 데모의 주역 7명 중 5명이 농촌출신이었다. 또 4·19서울대 데모 주역 11명 중 9명이 농촌 출신이었다. 그들의 출신지를 보면 대부분이 농촌과 중소도시이고 그들의 사회적 이동경로는 대략 「농촌→중소도시→대도시(서울)」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경로의 배후엔 이상백 교수가 지적했듯이 계층결정요인으로 인격 외에 ‘학력’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안한 도시의 사회계층구조 속에 살고 있는 이농 2세대는 3·15부정선거를 기화로 동료인 도시학생들과 결합·동맹하게 되고 여타의 지식인들과 손을 잡게 되어 혁명적 행동을 계획·실천해 옮겨갔던 것이다.

그러기에 4·19혁명세력은 학원내의 이농 제2세대가 도시학생들과 결합된 학생집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교수단, 언론인, 상공인, 농민, 노동자 그리고 일부 군인층에 이르기까지 학생봉기를 지원하는 심리적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이것은 노출되진 않았지만 농민이 도시인을



선도한 ‘녹색봉기적’인 성격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4·19는 잠재적인 혁명세력인 농민의 품에서 탄생한 전민족적인 혁명으로 승화될 수 있다. 따라서 4.19혁명은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는 탈식민지시대를 특징짓는 총체적 혁명이었던 것이다.

4. 맺는 말

4.19혁명은 대내적으로는 이승만 독재정권의 붕괴를, 대외적으로는 일본, 터키, 태국 등 범세계적인 학생운동으로 번져가 민족과 민족의 바다를 넘어 목시적 혁명연대를 이룬 조국 코리아의 “촛불”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4·19라는 특수성의 창구를 통해 학생운동의 보편성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일반적으로 각국의 민족정신 내지는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주와 독립, 자유와 민권과 같은 것이 이념의 꽃대가 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성과 보편성은 서로 단절되는 개념이 아니라 특수성 속에 보편성이 투영되어 있고 보편성 속에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어 상호 유

기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다.

자유당의 철퇴가 우리의 심장에 와닿는 그 당시 희미한 희망의 불빛마저 사라지려고 할 때, 우리가 계획하고 조직하고, 남녀연합전선을 구축한 4·19혁명의 그 두려움 없는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역사를 통해 끝없이 솟아오르던 민족정기가 단군의 후예인 우리에게 와닿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정기가 살아 있어야 민족정신 내지는 민족의식, 조국애가 풍요로울 수 있다. 따라서 자유와 민권이 유린되면 민족정기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반민족적 세력과 싸워 왔다. 우리의 민족정기는 일본군국주의 치하에서도 항일운동을 통해 손상 없이 보존·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당정권은 바로 민족정기를 정면으로 압살하려는 비민주적, 반민족적 권력체였다. 그들이 조성한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은 결과적으로 자유와 민권을 유린하고 독재정치를 감행해 조국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시에 저항의 횃불을 들었고, 파괴가 곧 창조라고 확신했었다. 우리는 민족정기를 부활시키라는 역사의 계시에 따라 행동해 나갔다.

4·19혁명은 가까이는 물론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나 그 기동력은 먼 곳으로부터 오고 있었다. 눈에 나타난 세력은 학생이었지만 눈에 나타나지 않는 또 하나의 잠재된 혁명세력이 4·19혁명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4·19혁명의 추동세력들은 대부분이 농촌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농민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민족의 주체로서 역사를 통해 수탈과 착취를 당해왔다. 그래서 때로는 민란과 같은 농민운동으로, 때로는 동학과 같은 혁명으로 지배체제에 저항해 왔다. 이것이 항일운동기에는 3·1운동으로,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져 왔다. 다만 학생이 전면에 나선 것은 신학문이 들어오고 난 후 민중의 대역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자유당시대에 들어와서 농민은 실농정책으로 인해 이농을 하게 되고 도시로 나간 농민들은 거의 영세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자라나고 있던 도시의 이농 2세대는 자유당 독재에 분노하고 학생활동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하려는 ‘혁명예비군’으로 전화되어 가고 있었다. 여기에 3·15부정선거는 혁명의 기폭제로 던져졌던 것이다. 그래서 농촌출신 학생들이 도시 원주민학생들과 동맹을 하여 거리로 뛰어나간 것이 바로 4·19혁명이었다.

그러므로 4·19혁명은 일면 녹색봉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밖으로 노출된 부분은 학생이었지

만 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력은 농민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4·19혁명은 문화인, 언론인, 지식인, 도시상공인의 비호를 받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4·19혁명은 단순히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포말적인 학생운동이 아니라 민족정기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생명력을 지켜내려는 자유·민권운동이었으며, 민주·민족운동이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엄숙하게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혁명으로 우리는 자부할 수 있다. 민족혼은 이제 4·19혁명을 통해 부활한 것이다. 이후 4·19혁명은 도쿄와 이스탄불의 거리에서, 또는 방콕의 피압박군중 속에서 해방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학생운동으로 규정된 것은 조국에의 배반인 것이다. 헌법 전문(前文)에 살아있는 4·19는 하나의 장식용에 불과하단 말인가.



2·28 시민공동체생협(가칭) 설립을 제안하면서....



류진춘
(부의장)

2·28기념 사업회로서는 2006년도를 보내는 감회가 특별하다. 1960년 4월 혁명의 도화선을 이룬 2.28의거 이후 46년 만에 2·28대구 민주운동지원 조례 제정으로 2·28회원과 시민사회에 2·28정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마산의 3·15나 4·19는 물론이며 부산 민주공원 지원조례가 일찍이 제정되어 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물론이며 시민사회로부터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2·28의거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2·28 세대의 평균연령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2·28주역들의 개개인의 면모는 삶에 지쳐 있어 그들의 생활상도 대구경제와 함께 활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28회원과 시민사회를 조합공동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조직 활성화를 기하며 2·28대구 민주운동기념 사업회의 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는 2·28시민공동체 생협 설립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2·28시민공동체생협을 통하여 2·28기념사업회의 사무국의 인력충원과 사업회의 물적기반 확충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공간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 2·28시민공동체 생협의 의의와 역할

생협이라는 개념에 자주 접하지 못한 사람이나 생소하게 느끼는 분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의의와 역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생협의 의의와 역사적 계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생협의 특성으로는 물적 결합이 아닌 인적인 결합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산업자본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과 비효율적 유통부문에 대해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소비자)이 자발적인 조직결성과 이를 통한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상품구매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조합원의 생활을 옹호하고, 바람직한 생활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협이 발족된 역사적 계기는 다음과 같

다.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효시는 1844년 자본주의를 먼저 시작한 영국에서 설립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을 출발점으로 한다.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은 영국의 랑카시아지방의 로치데일의 직물직공 28인이 1인 1파운드의 출자금을 내어 만들어 졌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이 조직된 사회적 배경은 19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상품경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을 통해 계급적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초기 자본주의의 공황으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생활고에 허덕였던 18세기 중반 영국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협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이 다음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양질의 상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상인자본의 횡포에 대항해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다.

20세기 접어들어 산업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을 매개로 한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는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물질적 풍요에 상응하는 대가로 인류는 ‘환경오염’이라는 과제를 선사받았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선진 각국은 환경문제에 뛰어들었고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와 자본에 의해 노동과 인간이 조절되는 자본의 압도적 우위성의 산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생협설립을 위한 소비자 시민들의 움직임과 논의도 늦었으며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와 그 작용으로 인하여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없어 대단히 늦게 설립되었다. 소비자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인 생협은 1980년대부터 조직되어 생활물자의 직거래 등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안전한 먹거리 찾기,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환경보호 및 재활용품 사용, 인간소외극복 운동 등에 힘

입어 생협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졌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조합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생협은 농·수협 등 생산부문의 협동조합과는 달리 개별법에 의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기까지는 조합에 대한 공신력의 결여,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상의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그 저변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따라서 생협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들의 자주적인 생협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소비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법의 제정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입법운동 또한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농축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환경친화적이고도 근검절약하는 소비생활 풍토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생협법을 1998년 말 제정하였으며 1999년 7월부터 발효 시행되었다. 생협법 제정의 취지는 생협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으니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을 통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생협의 역할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생협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교류의 장을 통해 단순히 농·수·축산물의 직거래를 주로 하는 중간유통단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을 자주적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체적 성격을 명확히 할 때 생협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이후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체제속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시민생활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

다. 시민들이 양극화 되어가는 경제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불안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생협운동은 이러한 생활공간 속에서 단순한 소비자와 구매자로 전락한 시민들이 소비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건실한 소비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풀뿌리민주주의 창달과 국민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때일수록 상호부조하는 생협운동을 통하여 서로 협동함으로써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협의 조직원리의 성격과 기능으로는

첫째, 생협은 자발적인 조직이다.

즉, 생협은 조합원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드는 소비자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둘째, 생협은 생활공동체 조직이다.

즉, 생협은 소비자시민 스스로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웃과 함께 협동하여 만드는 자조·자립·자치의 생활 공동체조직이다.

셋째, 생협은 비영리 조직이다.

즉, 생협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조합원들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조합운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조합운영으로 발생된 잉여금은 조합원들에게 배당된다. 따라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출자·이용·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이다.

그러면 2·28시민공동체 생협의 설립을 통하여 펼칠 수 있는 사업활동으로는 어떠한 것이 가능한

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 물자 공동 구매·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농·수·축·임산물 등 생활필수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가공하여 구성원 조합원에게 공급한다.

둘째, 공동이용시설운영이 가능하다.

구성원조합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조합원들이 이용한다.

셋째, 생활개선 및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구성원조합원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넷째, 환경보존 및 자원절약활동을 할 수 있다.

재활용품, 재생용품 및 환경친화용품 등을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보존에 기여한다.

II. 2 · 28 시민공동체생협(가칭)의 설립절차와 설립요건

첫째 생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설립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우선 2·28 회장단, 사무총장, 고문, 이사 그 외 관심 있는 분으로 총 8~10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법적효력을 갖는 조직은 아니지만, 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에 필요한 기초업무를 수행한다.

○ 주요업무

- 기초자료수집
- 정관(안) 및 규약(안) 초안 작성
- 발기인회 구성

발기인대회 및 발기인회의 준비

둘째, 발기인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발기인회 구성은 2·28 회장단, 사무총장, 고문, 이사 등 30인 이상으로 구성(생협법 제6조 제1항) : 현실적으로 32~3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발기인회는 발기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대표 1인(창립총회의 의장이 됨)과 문서작성, 회의의 기록, 예산의 집행을 담당할 간사 1인을 선임.

○ **발기인회의 역할로는**

형식적 의미로는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생협 설립 업무를 하는 자.

-실질적 의미로는 생협 설립의 발기 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중인 생협의 기관으로서 설립 관련 업무 일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자.

-발기인회는 법적효력을 갖는 조직.

○ **발기인회의 주요업무로는**

-정관(안) 및 규약(안) 작성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의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300인 이상(생협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설립자본금(출자금) 조성-3,000만원 이상(생협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창립총회 개최 준비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
-창립총회 개최 공고 및 통지-15일 이상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생협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셋째, 발기인회의 역할이 원만히 수행된 다음 단계는 창립총회의 개최이다.

① 창립총회의 의사결정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생협법 제6조 제2항)

② 창립총회의 의결사항

-정관(안) 및 규약(안)의 확정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의 확정
-임원(이사 및 감사)의 선출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의결

넷째, 창립총회가 끝난 다음 단계로는 법인설립 인가가 요구된다.

① 법인 설립 인가 신청

창립총회가 종료되면 발기인대표는 설립인가신청서(생협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대구광역시장에게 위임)에게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

② 법인 설립 인가 기준

-설립동의자 수 300인 이상
(현실적으로 310인 정도가 좋음.)
-설립동의자 출자금 납입총액 3,000만 원 이상

③ 법인 인감 신고

법인 설립 등기와 동시에 생협은 관할 등기소에 이사장 직인으로 인감제출원을 제출하고 인감신고를 해야 함.

다섯째, 법인 설립 신고(사업자 등록) 절차로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고서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법인세법 제2조, 제60조)

철강산업의 현황과 전망



정 인 상
(산학연구원장,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POSCO석좌교수)

1. 글머리

인류 문명의 역사는 그 시기에 주로 사용했던 재료의 종류로서 분류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쳐 철기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철강을 대체할 다른 주요 재료가 있는가? 우리 주위를 둘러 보면 자동차, 교량, 송유관, 선박, 철도차량을 비롯해서 주방용기, TV, 바늘 및 피아노와 에어컨 등 철강재가 쓰이지 않은 시설이나 물건을 찾아 내기가 쉽지 않다.

철강재는 철(Fe)을 주성분으로 하는 많은 종류의 합금을 총칭하지만, 지구 질량의 35%가 철(Fe)이며, 두 번째로 많은 산소(O₂)가 30%이고, 세 번째가 모래의 주성분인 실리콘(Si)이 15%라는 사실에서 그 진실은 밝혀진다. 실제로 지각(地殼)만 따진다면, 그 존재량이 산소(46.6%), 실리콘(27.7%), 알루미늄(8.1%), 철(5%)의 순서이지만, 그 용도의 다양성과 생산 가격 등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철강보다 더 더 다양한 범위의 특성을 가지며, 가격이 저렴한 재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철강은 산업의 쌀(양식)이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국가의 성쇠를 가름할 중요성을 가진 자본 집약적인 장치산업이면서, 국가 위신에 관련되는 산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의 보편화와 세계화

의 물결 속에 기업의 국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계적 소비재 산업으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2.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현황

우리나라는 POSCO가 생산을 개시하기 전인 1970년에 세계 35위에서 2005년에는 조강(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1차 생산된 철강재) 기준으로 4780만 톤의 철강재를 생산하는 제 5위의 국가이다.

표1. 2005년도 국가별 조강생산량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한국
조강량(백만톤)	349.4	112.5	93.3	66.1	47.8
점유율(%)	30.9	10.0	8.3	5.9	4.2

POSCO는 유연탄과 석회석을 이용하여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2개(포항 및 광양) 제철소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조강 생산 순위는 '05년도에 세계 4위이다. 그 외의 국내 철강회사는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재를 재생산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올해 11월 충남 당진에 신규로 7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건설 시작) 한편 철강재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국내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들어 향후 10년간 연 평균 수요 증가율이 2%정도로 전망되며, 05년도 KIET의 자료에 따르면, 표 2와 같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철강 생산량은 1000 kg이 넘는 세계 1위 국이며, 향후 수출 다변화를 통해 생산물량을 해외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다.

표2. 국내 철강재 수요 전망(자료 : '05 KIET)

구 분	2000	2005	2010	2015
국가	37.5	47.1	54.3	557.3
조강량(백만톤)	4.7	2.9	1.5	1.1

또한 냉간 압연(가전 제품용과 같은 얇은 강판 제조공정)의 단압 비중이 세계 평균은 1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0%로 기형적으로 높고, 규모가 작은 많은 기업이 도토리 키재기의 경쟁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세계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통해 다국적 기업으로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북 아시아만 보더라도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라도 고급 강재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국 철강산업도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현실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조만간 추월 당할 위기에 있는 바, 이미 원가 경쟁력이 추월 당한 상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3. 세계의 철강산업 동향

세계적인 철강의 수요를 보면 60년대에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이미 7억 톤에 달한 것이 90년대 후반까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70년대 오일 쇼크로 침체기 두번이나 있었음), 그 이후 급격한 생산 증가를 나타내어 현재는 10억 톤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원인은 BRICS로 통칭되는 신흥 개발국의 수요 증대 및 생산 증대에 있다. 세계철강협회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2020년까지 현재의 약 2배인 21억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철강산업은 20세기 초반에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이 아직도 새로운 성장산업이라는 결론이 된다.

90년대에는 POSCO가 단일 기업으로는 생산량 기준 세계 1위였던 것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인수 통합으로, 이제는 1억 2천만의 생산량을 가진 단일 기업이 탄생하였고(유럽의 Arcelo와 인도의 Mittal 합병), 향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Global 통합화와 규모의 대형화를 위한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망은 90년대 초까지 5천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보이던 중국에서 2000년 이후 매년 5천만 톤씩 증산하여, 올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4억 톤에 도달할 것이 확실하며, 또한 원료를 공급하는 철광석 점유율이 상위 3사가 전 세계의 78%, 원료인 유연탄은 상위 5사가 66%를 차지하는 심각한 독과점 체제에서 원료의 공급 조절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이러한 자원의 지역 편중이 자원의 nationalism과 맞물려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POSCO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까지 2003년 이후 원료탄은 146%, 철광석은 167%의 가격 인상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철강의 생산 능력이 과잉(인구 1인당 연 300kg 정도이므로 우리의 기준으로는 과잉으로 보기 힘들지만)으로 생각되는데, 2~3년 내에 1억 5천만 톤 정도의 시설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내 철강사들은 제품의 고급화와 원가 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기를 맞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마무리

간략하게 살펴 본 우리나라 철강 산업과 세계 철강 산업의 동향을 보면,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한지 될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첫째가 우리 나라가 갖지 못한자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철광석과 원료탄을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철강 제조기술을 가져도 가격 경쟁력은 확보할 수가 없다. POSCO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해외 사업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인도 및 브라질) 제철소를 추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전략에 따른 것이며, 새로 시작한 현대제철에서도 이러한 전략하에 원료 확보, 판매망 확보 및 기술 개발로 원가 절감에 의한 경쟁력을 높여야만 될 것이다.



둘째로 국내 시장만을 겨냥한 규모가 작은 철강생산회사(주로 전기로 업체가 해당)들의 합병을 통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시장 장악력에서 제품의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철강재의 특성상, 규모의 확대를 통한 가격 절감과 시장 지배력을 키우지 않고는 무관세가 대세가 되는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전략이 생존의 필수 요소가 아니겠는가?



셋째로 우리나라의 자원은 우수한 인재밖에 없는데, 철강산업에 우수한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단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 하여 모든 이공계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외면하는 현실을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타파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제 기업활동에서 국경의 존재는 무의미한 현실에서 철강 산업을 통해 세계를 상대로 일할 능력있는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넷째로 인류 사회가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도 지구상에 있어서는 소재로서의 철강의 역할이 절대 작아지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보여 주었던 철강의 특성을 한층 더 나은 소재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연구에 집중하여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철강 제조 기술은 약 200년 전에 개발된 기술을 계속 개량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발전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혀 새로운 공정을 통해, 철강을 생산하는 우리 고유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기술로서 세계 철강 산업을 우리가 뜻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식정보사회에서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겠다. POSCO에서 시도하는 FINEX 제철은 기존의 용광로 조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기술이고, 쇳물을 판재로 만드는 공정에 도입하려는 STRIP CASTING 기술 또한 기존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공정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화산 오르는 날

박 예 근(시인)



작가약력

박예근(본명 : 칠근)
1959년 경북 의성 출생
대구동아손해사정 대표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겸임교수 역임.
2003년 격월간지 『시를사랑하는사람들』로
등단
『시인의 눈』 편집위원
계간지 『시하늘』 편집위원

청화산 오르려고
조성지* 고요와 상의한다
황톳길 반기듯이 팔각정 세우고
산문 열리니 가운데로 들어 간다
기분 더 내려면
오리나무 그늘에 쉬어가도 좋고
원시의 취향이 흥건한 웅덩이에
은밀의 맨살 적셔도 그만이다
망개나무 붉은 열매가 비추는 오솔길
소망한 시절이 술잎 향기에 널따랗다

청화산에 가면 길 아닌 곳에도 길이 있다
고사리 취나물 나풀대는 노긋한 땅
염원의 푸른마을 원색으로 반기고
상수리 도열한 언덕에 인적 화사하다
이별마저 아름답게 인연하는 날
청화산 오르막길은 좁을수록 아늑하다.

*청화산 아래에 있는 저수지

침대칸 밤기차



장 영 향
(수필가)

니스에서 낭트로 향하는 침대가 있는 열차를 오후 6시 20분에 올랐다. 마침 우리 칸에는 다른 승객이 없어 마음놓고 짐을 정리하였다. 며칠 동안 트렁크를 안 열어도 될 것과 내일 종일 쓸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 자물쇠를 채워도 우리뿐이다.

침대칸은 한방에 여섯 명이 탈 수 있다. 벽 쪽으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양쪽이니 여섯 명이 탄다. 아마 돈 많고 시간이 바쁜 사람은 테제베를 타겠지만 내가 탄 것은 밤새 달려서 다음날 오전 7시 넘어 도착하는 완행열차였다. 가족들이 큰 가방을 몇 개씩 끌고 이사가는 사람들 모양 짐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런지 차림새도 양복 입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평상복이었다.

나는 노을지는 시간의 저녁 풍경을 보았다. 숲들이 지나가고 강을 건너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 둘씩 켜지는 시골에 양떼들을 우리 속으로 몰아 넣는 농부도 보았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형상이 아름다운 산호색으로 바뀌어 가는 저녁궁전의 앞마당이 저러할 것 같아 내가 마치 초대를 받은 듯한 착각에 빠져 사

진도 찍고 하였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 창 밖이 너무 밝아서 밥 생각은 안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조용히 노래가 되어 나왔다. ‘나의 살던 고향은’ ‘아리랑’ 등 여러 동요를 불렀다. 슬프지도 않았는데 괜한 눈물이 불을 타고 흘렀다.

내가 떠난 내 나라의 집들도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둥근 식탁에 가득한 분꽃을 피우겠지.

갑자기 혼자 지구를 떠나 먼 우주를 정처없이 헤매는 아주 적은 떠돌이별이 된 것 인양 초라함과 외로움으로 여지껏 살아온 내 모습이 보였다. 언제 이런 한가한 시간이 있었던가를.

내가 없는 우리 집은 어떠한가. 내가 없어도 아무 탈없이 잘 지내겠지. 떠밀려진 기분이 되어 전화를 하였다. 전화선을 통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아주 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까이 들렸다.

“일은 진척이 잘 되고 있으니 마음놓고 구경 잘하고 오세요”

휴가동안 몇 가지 공사를 시켜놓고 왔기에 미안

함이 있었다. 그래 내가 자리를 비워도 집은 평안해야지 안도감과 떨어져 있는 서로가 하늘의 작은 별처럼 반짝이며 바라보는 너와 나의 작은 별이었다.

지상의 레일 위를 달리는데 무한궤도를 돌아 돌아서 안드로메다로 질주하는 은하철도 같은 느낌이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우리의 자리인 2층 침대에 누웠다. 비치된 물 한 병과 귀막이, 안대까지 차고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는다. 덜경거리는 기차바퀴의 소음은 시끄럽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오히려 몸이 리듬에 따랐다. 잠 안 오는 이유는 자리가 바뀌면 잠 못 이루는 잠뎛 때문이었다.

어느 역인가 정차하였다. 그리고 우리 방에도 프랑스인 내외가 들어왔고 그들은 3층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눈인사를 하였다. 체구가 큰 사람들이 우리 몸 위에 있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다. 자다가 저 사람들이 굴러 떨어진다면 어떻게 괜한 걱정까지 혼자 하면서. 그들은 피곤하였거나 아니면 이런 열차에 익숙한 듯 곧 잠에 들어 코까지 골았다.

간이역인지 큰 역인지 밝은 불빛이 헤아릴 수 없이 지나갔다.

나는 영화에서 본듯한 침대차를 떠올려 보았다. 영화 속엔 멋져 보이기도 하였고 사건이 진행되어 긴장감과 쫓고 쫓기는 충격 사건도 있었다만 이곳은 평화의 시간이 고여 불편하지 않은 잠자리였다.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철도가 개통되면 시베리아를 거쳐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된다는 유레일패스를 타 볼 날이 꿈같지만 앓고 언제쯤 이루어 질 것이라는 사실이 거짓말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뒤척인다. 몸은 누웠는데 마음은 밤바람처럼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돌아다닌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를 딱 부러지게 표현 할 말을 찾다가 명쾌한 해답을 구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피식 웃어본다. 그게 무어 중요하다고 그냥 사는 게지. 그리 고답적인 일은 철학자들의 몫이 아닌가.

어린 날과 지나간 날이 영화 필름처럼 씩이 바뀌며 넘어간다. 어느 한 시절이 오버랩되어 오래 머문다. 되돌아 갈 수 없는 사라진 과거에 앉아 있기도 하였다. 후회하고 싶은 한 때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아온 왼쪽 길이 아닌, 가고 싶은 오른쪽 길로 접어들어 갈 것이라고. 또 되감기가 안 되는 아름다운 날은 더욱 아름답게 덧칠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이 따갑다. 돌아누워 보니 창 밖이 어둡지 않았다.

3층에 있던 남자가 아내를 깨운다. 그들은 빠른 동작으로 짐을 챙기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다. 나는 그들에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고 그들도 손을 흔들어 짐을 메고 나갔다.

기차는 좀 오래다 싶을 정도로 정차하고 있다. 호각소리도 들리고 밖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무래도 조금은 자야될 것 같아서.

그런데 낭트였다. 모두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바쁘게 짐을 들고 머리도 쓰다듬지 못하고 내렸다. 언제 거둘지 모르는 물기 젖은 안개가 가득한 아침이었다.

작가약력: 경북 칠곡 출생,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32회), 현대문학 수필 등단, 대구문인협회 회원, 영남수필회원, 대구 여류문학회 회원, 현대문학 수필작가회 회원

속이생각 Ⅲ



김 상 숙
(2·28 부의장)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상당히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같으나 실제로 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듯하여 마음 한곳이 허전하다. 올 하반기 경기지표가 먹구름을 드리운 가운데 내년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고 교수신문선정 2006년 한국사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密雲不雨”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올해 김영삼 전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새해 인사장의 사자성어는 “無信不立”이다. 재앙은 저 혼자 오지 않는다던가 옆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다이야기”와 함께 떠내려가고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우리국민 대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층이다. 그러나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손놓고 당할 수는 없을 것이니 기업은 끊임없이 평범한것 이상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야하고 또 우리 일반인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지금은 1960년 2·28학생의거 4·19혁명이었던 20세기가 아니고, 그당시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이던

이기붕家에서 쌀, 소금, 밀가루, 설탕 등을 뇌물로 받던 그런 물건들은 이제 서민층도 누구나 갖고 있는것들이다. 지금은 그야말로 세계를 바라보고 적응하고 경쟁해야 된다는데...21세기는 유비쿼터스 시대라나? 라스트애니멀, 유인원, 인류의 최초에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한낱 먹이감에 지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지금까지 눈부시고 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유비쿼터스까지 이르렀는데...

나는 요즘 귀한 컴맹이라 이런 눈부신 발전에는 감동받지 못한다. 외국에 사는 딸이 화상동영상 통화를 못해 불편하다고 난리지만, 나는 접속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컴퓨터가 너무 편리하고 맘에 들어 오히려 컴맹을 자칭하고 나선다. 우리집에 붙어있는 홈오토메이션으로 집밖에서 전화전기를 제어 하는 것을 작동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나는 냉난방 전기 등 모든 것을 집에 도착해서 쓰고, 밥도 짓고 생선도 굽는다. 근본적으로 집밖에서부터 이런걸 작동하고 리모컨으로 집밖에

있는 자동차에 엔진을 가동시키는 자체를 나는 싫어한다. 보일러가 말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아날로그시대의 촌여자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가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카드 하나로 집 내부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나도 없는데서 밥도 짓고 국도 끓이는.....그리고 주택내에서 주택외부의 단지내 시설도 원격 조절하는 일을 나는 싫어한다. 또 옥조에 들어가면 옥조 자체가 알아서 물온도를 조절하고 물높이(양)를 알아서 조절해 주고 싱크대와 세면대의 높이는 그 앞에서는 사람의 키에 따라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곧 실천된다는 유비쿼터스 아파트). 나는 정말 왜 이것을 참을수 없을까? 스스로 반성하고 꾸준한 노력을 한 덕택에 그래도 디지털에 대한 거부반응을 많이 줄여서 지금은 겨우 디지로그(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접목) 사고로서 현대와 전통이 적당히 융합되어야(공동체와 개체성이 융합되듯이) 이런 방식으로 인류의 미래 또는 지구의 건강을 지켜나감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적응하고 체험하면서 꿈과 희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며칠전 신문에 은행 CEO로서의 한국씨티은행 행장님의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요소란 기사가 생각이 난다. 바로 꿈, 끼, 깡, 피, 꿀, 끈 이라고.....이를테면 야망과 열정, 기개와 지식 또 자기 관리와 네트워킹을 각각 뜻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은 많은 양의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요지의 강의를 모교 중학교의 후배들에게 하셨다고,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나는 지금 여기서 긍정적인 사고와 체험하는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긍정적인 사고로는 성서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있고 요즈음은 우리나라도

정말 다양하고 과감하고 폭넓은 체험공부를 하고 있어 정말 유익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예를 들어 어린이 숲속체험, 도자기체험, 해병대체험, 공룡구경, 파충류만져보기, 바지락과 낚지를 건지는 갯벌체험, 옥수수따기체험, 가족과함께 달구벌역사찾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들로 무장하고 꿈을 키워 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든든해짐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나는 1990년 아이를 좋아하고 탁아소에 관심이 있어 딸과 함께 일본에 견학을 갔었고, 걸음마도 겨우하는 어린이를 다루는 탁아소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놀라고 또 놀랐는지 모른다. 어린이가 먹고 놀고 자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질서를 지킴에서) 손가락과 장난감 다루기, 더불어 지내는 일에 무리가 없었고, 어린이 3명당 1인의 교사 월급은 국가가 지불한다고 해서 부러웠다. 모든 교육의 그 출발은 탁아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성교육도 이때부터 시작되지 싶다. 나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도 과학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정신문화와 인성같은 것이 같이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신문화가 디지털 과학을 따라가지 못함이 아쉽다. 그 90년도의 탁아소 견학을 계기로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 꽤 많이 배웠다. 이번에 가고시마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할 수 없이 그곳을 관광하게 되었고, 비가 많이 오는데도 어린이들이 줄을 길게 늘어난 향토관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 것이다. 누가 만약 필립핀에 간다면 세부에는 마젤란 기념비가 있고, 마닐라에는 리잘공원이 있고, 필립핀 독립영웅 호세리잘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갈 것인데 나는 가고시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을 둘러보게 된 것이다.

가고시마는 조그만 중소도시로 대구와 상당히

비슷한 정신문화가 있다고 느껴졌었다. 대구의 옛 이름이 달구벌이듯이 가고시마는 옛날에는 사쓰마라고 불리웠다고 한다. 사무라이정신, 사쓰마정신이란 말을 일본사람들이 많이들 써도 그 어원은 모르다가 우연히 들은 유신후루사또관(사쓰마역 사탐방)을 보면서 우리 대구의 화랑정신, 달구벌정신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현대 일본을 일으킨 3사람(오오다 노부나가, 도요 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쓰)이 우연히 다 나고야 사람이라 그 고향이 같은 3사람 이야기가 끊임없이 역사에 나오고 또 그 현대 일본의 원동력이 된 명치유신을 이끌어온 3사람의 고향이 이 사쓰마인지라 이고장 사람들의 긍지가 대단하였는데, 사쓰마 후루사또관에는 유신의 풍토 사쓰마의혼을 강조하면서 명치유신 이전과 유신 이후의 일본을 테마로 전시하고 있고, 막부 이후에 필요했던 유신의 본고장으로서의 긍지를 느낄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었다. 사이고 다카모리, 사마즈나리아키라, 오쿠보 도시미치 등이 쓰던 집기, 의복, 도시락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들은 거구의 사무라이들이었는데도 손가락만한 생선과 김, 된장국, 밥 이렇게 소박하고 간단한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고, 내가 본 나고야성의 도쿠가와 이에야쓰의 밥상과는 도저히 비교 할 수 없이 검소하고 소탈했다.

나고야의 3사람은 성 외부에서 보기에는 검소해도 실제로 성 내부에서는 국민 몰래 풍족하게 살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쓰마의 이들은 항상 근검했다고 되어 있다. 그날 그곳에 온 어린 학생들도 진지하게 메모하고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꽤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짧은 반바지에다 운동화 차림으로 그 검소한 점심을 먹고 그시대의 놀이감으로 놀이도 하고 있었다. 그날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

에는 사쓰마도자기 가마가 유명한데 그곳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때 전쟁포로로 잡혀온 조선인들이 생활보장을 받으며 도자기기술을 전수했지만 조선인의 길 또는 단군 조선사도 만들고 조선의 얼이 들어있는 도자기마을을 이루었다고 하니 다음에는 그리로 한번 가보고 싶다.

지금이 아무리 최첨단 시대라 해도 화랑의 얼, 달구벌정신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 일제에 항거하는 훌륭한 민족 시인들이 배출됐고 (이상화, 이육사 시인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민주화를 위해 독재를 타파하려 순수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4·19로...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연이겠는가? 1960년대의 새마을운동으로 우리의 고속성장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인정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자꾸만 위기감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 노대통령께서는 오늘 신문에 “그동안 참아왔지만 앞으로 할말 다하겠다.”고 하신다. 대통령이니까 국무회의 석상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도 있겠지만 일개 촌부인 나는 말을 다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굳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 대신에 ‘화랑정신, 달구벌정신’이라는 피켓을 들고 국채보상공원 앞에서 이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Free Hugs운동’ (안아드려요) 피켓을 들고 혼자 서있는 그 옆에 서있고 싶다. 내 손녀의 남자친구 나이인 정수연씨 청년이 혼자 서있는 것 보다 그 포용운동에 동참도 함께 머리숩 할머니가 옆에 선다면 괜찮은 그림이 될것도 같은데....(병술년 12.26)

※ 속이생각 I, II는 2·28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문화와 우리들의 생활

이고운(강동중 3년)

오늘날 우리는 발달된 디지털 문화 덕분에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세탁기, 에어컨 등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기기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즉,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 기술 덕분에 디지털 문화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또한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마냥 도움만 주고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디지털 문화가 확산됨으로 우리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높은 보급률을 가진 컴퓨터는 이미 사회의 다방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컴퓨터는 여러 대중매체의 대표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의 눈과 귀, 입을 깨우는데 공헌하였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은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넘나드는 인터넷 용어와 채팅 문화. 인터넷 용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적을 알 수 없는 신조어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은 대부분 저질적인 언어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답다고 인정되는 한글을 내버려두고 어찌 무국적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글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말, 우리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학생들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희망한다.

컴퓨터만큼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친 것은 휴대폰일 것이다. 조그만 컴퓨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 휴대폰은 누구나 주머니 속에 쏙 넣고 다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디지털 기기이며 이 역시 또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휴대폰을 두 명중에 한 명 꼴로 가지고 있다고 하니 새삼 놀랍기도 하지

만, 이것이 보편적인 현대인의 모습이라면 그리 놀라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휴대폰은 전화나 문자 이외에도 여러 기능이 추가되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편리하게 쓰이는 만큼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과도한 요금으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면, 학생으로서는 필요없는 대출관련 메시지나, 대리운전 메시지는 이미 생활의 소음수준이다. 또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신제품을 갖기 위해 한 해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바꾸는 것은 자원낭비의 문제점을 초래한다.

휴대폰의 과도한 사용요금은 사용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익만을 생각하는 회사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모두가 인정할만한 요금제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금방 새 것으로 바꾸지 말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즉 새 휴대폰은 분명 멋져서 만족감을 느끼게 할 것이지만 그것은 잠시동안의 즐거움이며, 경제적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거듭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했던 주머니 속의 휴대폰. 나날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의 의식도 그와 더불어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이 밖에도 수많은 디지털 문화의 유입은 우리의 생활에 장·단점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나, 이번 기회에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디지털 문화가 가져다주는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디지털 기기는 만들어진 의도에 따라 알맞게 쓰는 것이 올바른 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강문배

中國延邊 조선족의 삶

강문배 7회 개인전 / Then 7th Kang, Moon-Bae
Photography Exhibition 2007

본회 강문배 이사 개인 사진전이 지난 2006년 11월 8일에서 13일 까지 대구 동아쇼핑 10층 동아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강이사는 그동안 백두산 촬영을 위해 여러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의 사진작가들을 접하면서 전쟁과 생활고로 중국 간도지방으로 쫓겨가 한맺힌 삶을 살며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다 끝내 외로운 삶을 마감한 그들의 부모에단 슬픈 액며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민족 전통문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 쳐 보지만 중국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중국문화에 동화된 조선족 2세와 3세들의 애환을 기록으로 남기려 이번전시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족의 삶을 기록한지 어느덧 10여년이 흘렀다며 중국의 개방개혁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화로 젊은이들은 좀더 나은 삶을 위해 도회지로 떠나가고 이제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젊은날을 추억하며 외로운 삶을 이어가는것은 한국과 다르지 않아 농촌의 전통 생활양식과 면면히 이어오던 우리민족의 풍속도 점차 사라지는 안타까운 실정을 담았다고 한다. 강이사는 지역의 산업정보대학, 경운대학-동산대학원 등에서 멀티미디어 영상학을 전공하고 그동안 천불상(1995), 대구의 옛모습 그때를 아십니까?(1998), 하늘에서 본 대구이야기(2002), 강문배의 대구풍경(2004), 백두산 사계(2005), 대구 근-현대 풍경사진전(2005)을 가진바 있다.



Koo, Bon-Sook & MUI-A, Modern dance company

"꿈꾸는 者의 日記" 공연



-구본숙교수(서영수 이사의 내자)와 物我현대무용단-

본회 서영수이사는 2006년 11월13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몰아현대무용단(MUI-A, Modern dance company)주최로 “꿈꾸는 者의 日記”의 화려한 꿈의 공연을 개최했다. 추억 속 풍경은 우리를 가장 원초적이고 편한 모습으로 안내한다는 “꿈꾸는 者의 日記”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의식의 흐름을 통한 춤으로 투영시켜 보았다는 구본숙교수(영남대 무용학전공)는 현대무용이라는 틀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표현하려했던 동양적 정서의 근원을 다시한번 파헤쳐 보는 무대를 선사하였다. 몰아현대무용단(MUI-A, Modern dance company)이 주최 주관하고 대구광역시와 영남대학교, 한국현대무용협회, 미래춤학회가 후원하여 개최된 이번 2시간의 공연무대는 구본숙교수의 현대무용예술의 혼이 뿜어져 나오면서 대극장의 많은 관객과의 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충분했다. 영남대생활과학대 체육학부 무용학전공 구본숙교수는 이화여대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수학하고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 140여회 안무 및 공연을 하고 대구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1988-2000)와 대구춤페스티벌 대표를 역임한바 있다. 한국무용협회 예술상, 대한무용학회 무용예술상, 미래춤학회 무용예술상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연락처: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214-1 영남대 053-810-3136)

하혜주(河惠珠 HA, HAE-JU) 미술전

-대구 봉산동 갤러리 로 gallery RO-



본회 이종택이사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대구시 중구 봉산동 갤러리 로 (gallery RO)에서 내자 하혜주(河惠珠)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창작품 50여점을 선보였다. 자연과 정원풍경을 동경하며 자연과 함께 삶을 추구하는 작가 하혜주씨는 세종대학교 회화과와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 서울에서 9회의 개인전과 뉴욕, 파리,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홍콩등에서 해외전을 개최한바있고 화랑예술제 기획전, 초대전, 단체전 참가와 대구시전 운영위원, 심사위원과 대구대 · 가톨릭대 강사를 거쳐 현재 신미술회, 청백여류화가회, 한국미술협회, 대구시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 대구시 중구 대봉1동 40-44 하혜주아프리에(2층))(053-426-7527)

2006경산예술제 Gyeongsan Art Festival

-일연의 꿈,삼국유사의 비밀-



본회 김약수이사(대구미래대학교수, 한국예총경산지부장)는 2006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경산시민회관에서 한국예총경산지부가 주최하고 문협, 미협, 사협, 음협, 무용협, 서협, 연극인협회가 주관한 "2006경산예술제"를 열었다. 김이사는 개막 선언과 인사말을 통해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풍요로운 압량벌에서 일연연사 탄신 800주년과 제11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아울러 일연선사의 뜻을 펴게 된 감동을 전하였다. 이날행사에서는 일연선사의 시(향가)를 주제로한 시낭송, 연극, 무용, 노래, 연주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어우러 졌다. 제2부 일연의 꿈, 삼국유사의 비밀 부대행사에서는 연세대학교 고운기 교수가 일연탄생 800주년과 삼국유사의 초청강연, 시무용/몸짓으로 읽는 월명, 시낭송/해금과 함께하는 일연의 시, 시극/극으로 만나는 일연, 퓨전음악/오락실-견우-Frontier-방황 등이 펼쳐졌다.

대구사랑운동 10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



지난 2006년 11월 3일 대구은행연수원에서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공동의장 김범일, 전호영)가 주최한 대구사랑운동 10주년 기념행사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의 실적평가와 향후발전 방안에 대해서 종합 토론회를 가졌는데, 김범일 대구시장과 전호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사랑운동은 10년 동안의 실적은 매우 크지만 2007년도부터는 더욱 힘을 내어 시민과 국민들의 호응 속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실천사업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장경훈 대구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큰 성과를 보여준 집행부에 찬사를 보내고 미흡했던 사항들은 대구시와 의회가 협력하여 더욱 알찬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제1주제 대구사랑운동 10년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영창 사회발전 조사본부장은 대구지하철 참사의 수습과정과 추모과정은 대구가 새롭게 각성하고 대구사랑운동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대구사랑운동을 위해서 김범일 시장이 할 일은 '일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또한 이 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이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대구사랑운동이 선도와제나 기획과제화 되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 시민적 참여의 우선, 민간단체 대표들을 참여시킨 대중을 기초한 대중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향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2주제 담양허물기 10년평가 및 향후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제자인 경북대 김용수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다양한 만남과 여유로움으로 시민의식함양, 농지공간 확보, 도시공원의 거점 녹지화, 삶터 자치의 실현(마을단위 도시계획 확산, 정착), 가로공원 역할(공동체의식회복),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 기여가 성과이며 일반 시민 참여유도 홍보, 예산증액과 다양한 디자인형태개발, 다가구 허물기유도-녹지-주차 동시조성, 예산증액, 각 학교의 부공간 활용, 사후관리 철저를 과제로 삼았다.

토론회는 대구경북연구원 홍철 원장과 계명대 박세정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1,2주제를 진행한 이날 대구시의회 김덕란의원, 대구흥사단 최현복 사무처장,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박사, 김경민 YMCA지회관장, 권기찬 대구한의대교수, 김기수 계명대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음악연주 등의 문화공연으로 10주년기념행사와 토론회를 마쳤다. I love Daegu !

2006년 박수관 명창 공연 및 수상



박수관 명창

- UN세계평화훈장(06.06.20)
- 미국 대통령상 수상 (봉사상)(06.09.01)
- 제6회 미국 전역 한국 국악 예술경연대회 전 종목 심사위원장 위촉(06.12.09)

-본회 이사 박수관 명창의 2006년의 국내외 공연 내용을 결산 해보았다. 대구시민대상 수상자 이기도한 박명창은 지역과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과 교민들에게 한국민들의 애환이 담긴 민요를 불러 국위선양에 한 몫을 하고 있다-

- 이 시대의 명인 무대 「예인공감」초청공연 / 서울 한국창극원 한국음악홀 (06.02.10)
- 제16회 김해시 초청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특별 초청공연/ 김해문화의 전당 누리홀(06.04.09)
- 제4회 뉴욕세계합창제 초청공연/링컨센터(06.06.19)
- 김해시 초청 한마음 시민음악회 초청공연/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06.07.03)
- 통일어울림한마당축제 「박수관 동부민요」초청공연/ 서구문화회관 (06.09.07)
-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링카 국립음악원 개교50주년 초청 특별공연/ 글링카 음대 대공연장(06.09.20)
- 서울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동부민요의 밤 공연/홍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06.09.30)
- 광주 MBC 방송 「신얼씨구 학당」1시간 방영 (06.10.01 오전8시)
- 경주시 초청 「박수관 동부민요 한마당」초청공연 / 경주 안압지 특설무대(06.10.07)
- 동의대학교 개교40주년 초청 축하공연/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06.10.21)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 초청 「장애인을 위한 모금 합창제」공연/서구문화회관(06.10.26)
-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창립 16주년 기념 초청공연/한국문화의 집 코우스(06.10.31)

팔공산-가산산성, 앞산-산성산에 올라

-2 · 28산악회-



2 · 28산악회(회장 조영길, 총무 조암)은 지난 11월 24일과 12월 29일 2006년도 결산 산행을 팔공산 가산산성(902m)과 대구앞산 고산골 산성산(650m)에서 각각 모임을 갖고 오색단풍 나뭇잎이 소복히 쌓인 대구의영산 팔공산자락 가산 정취를 만끽하며 저무는 2006년도를 아쉬워했다. 2 · 28산악회는 그동안 25차례의 산행을 개최하였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2 · 28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대구 앞산과 팔공산, 비슬산을 중심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하는 행사이다. 이 모임에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므로 2007년 새해에는 더 많은 회원이 참가하기를 희망한다. 연락처 : 053-943-0228 (228demo@hanmail.net)

제6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구항일독립운동 기념탑에서-



2006년 11월 17일 오전 11시 대구 만촌동 ‘항일독립운동기념탑광장’에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권준호 광복회 대구경북연합본부장, 최용수 대구지방보훈청장, 류진춘 2·28부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지역 광복회 유족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에 침탈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명을 바쳐 순국하신 선열 및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자주독립정신을 기리고자 정하였으며,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 17일을 시작으로 올해 101년이 된다. 권준호 본부장은 헌사에서 순국선열을 위시하여 독립 운동 중 옥중에서 숨져간 수많은 선열들을 함께 회상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추모한다고 했으며, 2·28공동의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민족정기의 귀감으로 삼아 이를 계승, 발전시켜 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며,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의 울골은 정신을 본받자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재필(朴在弼) 외 6명에게 애족장 및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2·28테니스회 출범논의 -경북대 테니스코트-



지난 2006년 12월 24일 이기운 이사(경북대 교수)와 박명철 사무총장(테니스회 회장)이 회원으로 소속 되어있는 ‘두레테니스회’에서는 병술년 송년 테니스대회를 경북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개최하였다. 대회를 겸해 열린 회의에서 회원들은 ‘2·28테니스회’로의 명칭변경과 아울러 2·28회원 확충과 명예로운 대구시민의 씨름 활동으로 거듭날것을 논의했다. 두레테니스회는 이원일 회장, 이기운 회장과 최기삼 정명자 총무의 공로로 그동안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져왔으며, 2004년 2·28단체회원에 가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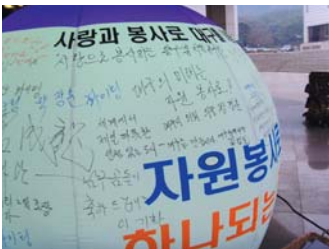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5주년 기념식-



함세웅 이사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신부)는 지난 2006년 12월 1일 한국일보사옥 13층 송현클럽에서 설립5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난 5년간 기념사업회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사업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한 임채정 국회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등 민주인사 3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함세웅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까지 사업회를 위해 힘을 모아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내년으로 다가온 6월 항쟁 20주년이 민주주의 계승발전과 민족의일치와 화해를 위한 사색의장이 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전당 건립사업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 사료수집 사업 등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6대구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로만드는 희망의도시! 행복한미래!-



지난2006년 12월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2006년도 대구자원봉사자대회가 열려 자원봉사활동 체험사례 시민상, 유공자표창, 축하공연 등의 행사를 가졌으며, 이날 행사는 시민자원봉사참여 확산과 체계적인 관리를 정착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 대구자원봉사자대회는 '자원봉사를 희망이있는 도시, 칼러풀대구!'를 슬로건으로 1996년부터 자원봉사 인프라구축과 자원봉사 참여유도를 통한 대구자원봉사 확산, 2007년도부터 자원봉사 네트워크 확대와 전문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관계단체 봉사단 수상자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대구시 북구 문귀자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70여명에게 행정자치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대구광역시시장상등의 개인 과 단체상을 수여했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의 자원봉사 시상식에 앞서 식당 입구에서 '세계에서 제일 따뜻한 인정있는 도시 대구를 만듭시다'라고 쓰고 있다.

2 · 28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일지



- 2006.10.11 산학연구원 (원장 정인상) 진수테리초청 “FUN경영” 특별세미나
- 10.14 김약수이사 (2 · 28편집위원장. 한국예총경산지부장) 2006경산예술제개최
- 10.19 김정길 공동의장 제4차임원회의 주재, 사업논의
- 10.21 김성태이사 장려결혼
- 10.27 2 · 28산악회(회장 조영길) 등산(대구앞산 고산골 산성산)
- 10.30 2 · 28임원 대구광역시장애방 현안논의(대구시청 시장실)



- 11.3 대구사랑운동 10주년기념행사 및 토론회(대구은행연수원)박명철총장 참석
- 11.6 2 · 28도로표지판 설치건의(대구시 도로과)
- 11.8 2 · 28표지석 관리건의(명덕R. 남구청문화공보실)
- 11.8 강문배이사 개인사진전(동아쇼핑 갤러리, 연변조선족의 삶)
- 11.11 정인상이사(산학연구원장)대구 · 광주 합동 등산회개최(지리산 청학동 삼신봉)
- 11.13 대구시의회 장경훈의장 접견(김정길 공동의장, 류진춘부의장, 박명철사무총장)
- 11.13 서영수이사 물아현대무용공연(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11.15 정인상 이사 199차 산학연구원 세미나(한국은행대구 · 경북본부)
- 11.17 제67회 순국선열의날 기념식(망우공원 항일기념탑)
-김범일 공동의장, 류진춘 부의장 참석-
- 11.24 2 · 28산악회(회장 조영길) 11월 대구팔공산 가산산성등산
- 12.1 2 · 28의햇불 24호 편집회의(사무처)



- 12.1 대구사랑운동 추진실적 통보(대구사랑운동사무국)
- 1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5주년기념식(서울 한국일보13층 송현클럽)
- 12.3 오유이사 차남결혼(월드컵경기장 웨딩홀)
- 12.7 2006대구자원봉사자대회(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김범일 공동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참석-



- 12.10 박준희이사 장남결혼(귀빈예식장)
- 12.19 최용호고문 학술교류 싱가포르출국(25일귀국)
- 12.19 정인상이사(산학연구원장)200회세미나(그랜드관광호텔)
-이화연 대구은행장 초청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뉴트랜드와 변화관리 특강-
- 12.27 2 · 28도서관명칭 변경건의(중앙도서관, 두류도서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훈

고상하고 명량한 품격을 가지자.
건전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자.
튼튼하고 깨끗한 신체를 가지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훈

자율: 슬기롭게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
협동: 남을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
강건: 건강하고 명량하며 활력이 넘치는 사람

-21세기 명문학교 경북대사대부고-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附設高等學校 同窓會



(우)700-431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0번지 (교내)
동창회사무국장.(053) **424-5488(고)** / (053) **421-6254(중)**
총동창회 사무실 및 역사관.(053) **257-0928**
팩스.(053) **425-7275** / **E-mail** : ksbugo@hanmail.net
총동창회 홈페이지 <http://koonung.net>

대구·경북의 미래!
대구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